

# 情報社會와 公共圖書館(IV) : 커뮤니케이션의 側面

Bob Usherwood 著

吳 東 根 譯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본고는 B. Usherwood의 *The Public Library as Public Knowledge*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영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 특히 우리의 도서관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역자주>

## 1. 圖書館에 있어서 매스컴의 役割

정보와 사상의 전달은 공공도서관종사자들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어느 점으로나 전자미디어와 그밖의 매스미디어(mass media)를 만들어내는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기관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봉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봉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革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회계사 출신의 인사가 BBC의 사장이 되었으며, 점차로 '문화의 정치가 상업세계에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그와 같은 발전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공공봉사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세계의 일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 있어서는 공영방송국과 공공도서관사서들이 많은 공통의 목표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에 들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는 물론 지역적인 수준에서도 방송국과 사서들 사이의 상호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86/7년 겨울 동안 셰필드시립도서관과 BBC 라디오 셰필드방송국은 힘을 합하여 심장병 수술을 위한 체온저하법에 대한 구조봉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두 기관이 협력하여 한편의 책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커뮤니케이션기관 간의 차이는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보다는 오히려 해당미디어조직의 구조와 목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 공공도서관사서와 그밖의 공공부문 커뮤니케이션작업자들이 부딪치게 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현정부가 언제나 부적절한 상업적 모델을 공공부문에서 운영되는 봉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여기서는 공영방송국의 방송인이나 사서, 정보작업자들은 情報要求에 대비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정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공공의 정보봉사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이 도서관이든 라

1) Jacobs, N., *Culture for the millions*, Van Nostrand, 1961.

디오방송국이든 관계없이 상업적인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라는 유치한 평가기준 이상의 것에 의해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상업적인 압력 이외에도 도서관과 매스미디어는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라디오방송국과 텔레비전방송국, 신문사, 그밖의 커뮤니케이션기관들이 현행의 공식적인 관점이 되고 있는 것을 표현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표현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정치적 작가 가운데 한사람의 말을 빌면, 영국에서는 한때는 독립성을 가졌던 BBC가 '총선이후에는 대처 수상에게 기어 들어가 버렸다... 뉴스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상황에 적용시키는 John Birt에 의해 발표된 정책에서도 그러하다... 실제로 Birt와 Checkland가 BBC에 부임한 이래로 현정부에 대한 BBC의 예의바른 태도는 상당히 증가하였다.'<sup>2)</sup> 그와 같은 행위는 전달되는 정보와 사상의 범위를 제한시키게 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현대의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아온 것처럼, 사회의 총체적인 기억장치와 사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도서관이 정치적인 압력을 받은 적이 없거나,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에서는 이미 이를 경험해왔다—가장 혹독한 종류의 압력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오랜 기간 동안 ڤ시스트(fascist)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음 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시대의 영국을 놓고 판단해보더라도, 정치가와 공중도덕의 수호자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을 막고자 애쓰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적사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의 최전선 가운데 일부이다. Lionel Durbridge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책 속에 담겨진 사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문명세계의 발전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

는 사상'<sup>3)</sup>인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경우는, 접근이 훨씬 더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송국이나 광고주가 제공하는 스케줄에 의해 접근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가장 불편한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현재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反知性的인 부분의 하나에서(이번에는 Gore Vidal을 공격하면서), *Sunday Times*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텔레비전스케줄을 잘 살펴보자. 일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경청해 보면... 당국은 점점 더 불명확한 곳으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sup>4)</sup>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시간조절에 대한 횡포는 이제 개개인이 프로그램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극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편리한 시간대, 즉 피크타임은 많은 청증을 갖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저질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회학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텔레비전과 영화는 가장 강력한 교육수단에 속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주요한 미디어들은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인 기회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데, 대개 이들에게는 고상한 목적이라고는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다.'<sup>5)</sup> 다른, 아니면 소수에 해당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밤늦게나 보내지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현대시와 Mills와 Boon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이를 비교해 보라.

다른 한편으로는 매스미디어는 공공도서관보다도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매스미디어는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간신문은 문앞에까지 배달된다. 이러한 미디어는 조금만 노력하면 집에까지 끌어들이 수 있

2) Watkins, A., 'Sucking up to Mrs. Thatcher, *The Observer*, 29 November 1987, 9.

3) Durbridge, L., 'Colleague and counsellor', *Library Review*, 34, 1985, 21-33.

4) Walden, B., 'Isolated elite must come in from cold', *Sunday Times*, 29 November 1987, p.34.

5) Roszak, T., *The cult of information*, Cambridge, Lutterworth Press, 1986.

는 것이다—그러나 도서관은 방문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노력과 아울러 심리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情報源을 갖게 됨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더 이상 도서관의 벽으로 이를 제한시킬 만한 여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 관외봉사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서관봉사는 이미 도서관건물을 벗어나 자유로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공공도서관에서도 기술을 이용하여 가정에까지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전통적으로는, 도서관과 그밖의 자료를 독자에게 직접 우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서관을 벗어나게 되면 도서에 대한 접근은 제한된다. 극소수의 도서관이 적절한 서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서적상들의 매수와 합병은 '상업적인 영향력은 소수의 강력한 출판집단에게 주어져 있으며... 소규모의 독립업체들 위에 군림하고 있음'<sup>6)</sup>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신종의 서적소매상들은 자신을 서점이 아니라 변화기에 자리잡고 있는 소매상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한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도서관매가 다른 종류의 소매와 하등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sup>7)</sup>고 한다. 서적상에 대한 이러한 밑바닥으로부터의 접근법은 부분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능력을 심각할 정도로 위축시킨 公共支出의 삭감의 결과로 야기된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도서관은 아직까지도 서적상에 대해 아주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일례로, 첫번째 소설의 시장은 거의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차지하게 되며, 공공도서관은 또한 출판사가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무료의 전시공간을 제공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도서관의 장서와 비교해 보면, 어떤 특정주제 분야에 관하여 전자미디어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는 넓지 못하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부문에서 근무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시간상의 제약을 갖고 있다. 30분짜리 텔레비전뉴스에서 전달하는 정도의 단어들은 고급신문의 한 페이지안에 아주 쉽게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편의 책속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에 관한 것들이 수록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볼 때 공공도서관은 훨씬 더 깊이있는 자료를 소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된다. 공공도서관의 장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관점과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 더 복잡해져 가는 세상에서, 다양한 자료를 입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더 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Tony Benn의 말과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매스미디어—신문과 텔레비전—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완전한 사상과 의견, 정보를 공공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경우에만 기능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sup>8)</sup> *The Sun*이 최고의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의 자리를 지키고, 소유권이 더욱 집중되어 가고 있는 나라에서, 신문의 현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동시에 公營放送도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떤 특정주제에 대해서 어느 텔레비전프로그램이나 라디오리포트, 신문기사보다도 더 풍부한 커뮤니케이션기록을 학생이나 노동자, 시민, 또는 단순히 흥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더구나 도서관의 자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자료는 다른 기록물과 관련하여 도움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과 두려움, 사상, 바램 등을 기록해왔다. 도서관은 이러한 정보를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해주게 된다. 어느 작가의 말과 같이, 도서관과 박물관을 통하여, '문명사회에서는 과거와 과거의 신념에 대한 영원한 기록물을 접하게

6) Foster, A., 'The battle of Britain's books', *Management Today*, March 1987, 39-45.

7) Stewart Binnie, managing director of Hatchards, quoted *ibid*.

8) Benn, T., *Arguments for socialism*, Cape, 1979.

되는 것이다.<sup>9)</sup> 더구나 도서관에서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정보를 조직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학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 과학적, 경제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정보의 검색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기록물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도서관은 더 이상 도서관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이제는 필름과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그리고 모든 새로운, 또는 그리 새롭지는 않은 기술이 만들어낸 진품들을 소장하기 위한 장소가 되고 있다. 도서관은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자원을 위한 장소이며, 실제로 멀지않은 장래에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公共資源 센터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종사자는 비전통적인 비인쇄자료에 걸맞은 명칭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자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사상은 신속하고 일시적인 형태로 수신되는 경우가 많다. 수신자는 자신이 보거나 듣게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평가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또한 값비싼 장비를 갖추지 않는 한, 이미 제공된 것을 '다시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전자미디어가 종이와 인쇄미디어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달자가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인에게 크리켓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읽을 책을 주는 경우 보다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성공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가정용컴퓨터와 함께 성장한 많은 젊은 세대들은 복잡한 브리태니커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의 색인 보다는 복잡한 VDU와 키패드를 더 잘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상태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생활상으로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전자미디어는 특히 효과적이다. 이러한 미디어는 최신의,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게 된다. 전자적인 뉴스수집과 같은 기법에 의해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당시에 이를 목격할 수 있다. 전세계의 사람들이 여러 사상과 승리 및 비극의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도서관 저널에 실린 정보는 비교적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와 사상에 대한 더욱 신속한 접근과 檢索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종이 및 인쇄자료와 전자커뮤니케이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이동을 목격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문화 속에서 살지 않게 되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종이 없는 사회'(paperless society)에 관한 예측이 분분하였다. 만일 그와 같은 사회가 도래한다면, 그리고 그리했을 경우에는, '도서관은 이미 수행해 온 자신의 역사적인 의무를 위축시키게 될 것인가?'라고 한 작가는 묻고 있다.<sup>10)</sup>

선진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문자해독률로 하여, 리터라시(literacy : 읽고 쓰는 능력)가 이제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사소한 기술이 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세련된 취향의 독점적인 부수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물론 과거에는 세련된 취향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리터라시가 고급문화의 글자 그대로의 단어를 보급시켜 주리라고 바랬었지만, Tompson이 지적하고 있듯이, '19세기의 개혁자들은 고상하게도... 일단 문맹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노동자들이 개혁자 자신들과 똑같은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다.'<sup>11)</sup>

대중적인 리터라시(mass literacy)로 인하여 두 개의 강력한 영역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하

9) Goody, J., *Literacy in traditional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10) Folk, H., 'The impact of computers on book and journal publication', in Divilbiss, J. C., ed., *The economics of library automation. Proceedings of the 1976 clinic on library applications of data processing*,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1977.

11) Tompson, D., *Discrimination and popular cultur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4.

나는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이다. 따라서 대중적인 리터라시에 의해 이루어진 시장은 값싸고 감각적이며 낭만적인 문학작품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동시에 싼값으로 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과 결합한 리터라시는 고급문화를 노동자계급 가운데 Richard Hoggart가 '열성을 가진 소수'<sup>12)</sup>(the earnest minority)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다. 한 비평가에 의하면, '圖書의 휴대가능성이 알파벳을 익힌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도 자신의 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한다.<sup>13)</sup> 어떤 사람은 이 개인주의가 자본주의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강화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사회에서 인쇄자료를 읽고 있는 개인주의자들은 현재 새로운 전자미디어의 폭격을 받고 있다. 이 미디어들은 그들의 모든 감각을 '공격하고' 있다. 한 영화제작자에 의해 이제는 냄새까지도 도입되었다. 우리는 뉴미디어가 문화와 정보, 사상의 전달자로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McLuhan은 우리는 '우리의 문명화된 기계적 문화에 끼어든 촌사람처럼 전기세계에서는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sup>14)</sup>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텔레비전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19세기의 대중적인 리터라시에 대한 사회적 반응 사이에서는 대등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선인들이 리터라시를 남용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스미디어의 문화적인 타락상에 대한 예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예로는 *The price is right*와 같은 소비자에 대한 외설적인 쇼나, *Sunday Sport*의 남녀차별, *The Sun*에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속여넘기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와 댄스, 다큐멘타리의 형식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있고, 예술적인 영화에서는 글자 그대로 때로는 아주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매스미디어는 때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高級文化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드라마제작과 고전의 연속극화는 비록 미디어에 의한 그와 같은 대중화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작에 대한 구입과 대출—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독서—를 증가시켜 주고 있다. Adorno의 말로는 '라디오가 베토벤의 5번교향곡을 휘파람 불기에 쉬운 곡조로 만들어 주었다'<sup>15)</sup>고 한다.

많은 영화와, 라디오, 텔레비전은 아직까지도 語文的인 型式(literary mode)으로 되어 있다. 이것들은 많은 프로덕션의 대화로 된 구조에서 볼 수 있다. '페이지를 마주보고 있는 독자의 고정적인 위치는 회화에 있어서 삼차원의 대상을 공간에 가시화해주는 투시화법과, 역사적인 이야기체를 연상하게 한다'고 McLuhan은 말하고 있다.<sup>16)</sup> 텔레비전과 영화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환상"(vision)을 만들어내고'<sup>17)</sup> 친밀감을 줄어듣게 한다. 이것은 텔레비전의 행사, 특히 의식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영국여왕의 25년제기념식을 BBC에서 보도하는 동안 성바

12) Hoggart, R., *The uses of literac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8.

13) Rosenberg, H., 'Philosophy in a pop key' in Wells, A., ed., *Mass media and society*, Palo Alto, California, National Press Books, 1972.

14) McLuhan, M., *Understanding media*, New York, McGraw Hill, 1964.

15) Adorno, along with Marcuse and Horkheimer and other members of the 'Frankfurt School' believed that popular music was a supreme example of the standard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which capitalist production imposed on artistic expression. See, for example, Adorno, T. W., *Prisms*, Spearman, 1967.

16) McLuhan (1964), *op. cit.*

17) Shklovsky, V., quoted in Lemon, L. T. and Reis, M. J.,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University of Nebraska, 1966.

울대성당의 상공에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이를 그림을 통해 설명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그 행사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이 예에서는 또한 텔레비전이 도서에 비해 훨씬 더, 작가는 물론 프로듀서와 기술자, 카메라맨에 의존하게 되는 상호협력적인 미디어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문화의 형식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우수한 정신적 체험은 문학과 도서, 독서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적당한 것일까? 아마도 이제 우리는 문학비평가가 구조와 형식을 관찰하면서 책을 읽어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자미디어를 ‘읽어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리터라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몇년전에 셰필드대학에서는 ‘텔레비전리터라시’를 다루는 선생님들을 위한 과정의 운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와 특히 텔레비전에 대한 의식있는 견해를 갖도록 하고, 비판적인 수용기법을 갖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텔레비전과 도서관, 지역연구기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관계는 당대학의 텔레비전센터와, 공예학교의 신문방송학과, 대학의 도서관학대학의 스태프들이 기획위원회에 참여했었다는 사실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최근에는, 셰필드시립도서관에서 필름과 비디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커뮤니케이션부를 신설하였다. 시립도서관장의 말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그들의 업무 가운데 상당부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송과 미디어의 기법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sup>18)</sup>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시청자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 규모와 구조 때문에, 매스미디어는 개인이나 어느 지역사회의 각 집단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라디오네트워크와 텔레비전네트워크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상업적인 압박 때문에, 대규모의 시청자에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비해 공공도서관은 비교적 소규모의 업무이다—공공도서관은 또한 봉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안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요구에 더욱 잘 부응할 수 있으며, 專門職職員을 고용하여 복잡한 자료더미 속에서 이용자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적 수준에서의 문화적인 바람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해내는 데 있어서 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시켜 주는, 그리고 실제로 이를 회복시켜 주는 핵심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체로서 공공도서관은 매스미디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물론 지방방송과 지방신문과 같이, 지역적 수준의 다른 커뮤니케이션기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BBC를 제외하고는 이들도 전국적인 신문방송과 마찬가지로 세액 및 광고수입을 끌어모으는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지역사회의 이익과 상업적인 이익이 상충하게 될 경우 거의 대부분은 상업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며, 그 결과 어느 지방방송국이나 거의가 다른 방송국과 동일해져 버리게 된다. 실제로 최근의 경향 가운데 하나는 상업적인 라디오 방송국들이 지방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더 좋은 광범위한 지역적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방송시간의 상당부분을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디오는 최근의 綠書(Green Paper : 정부의 견해를 기술한 것)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Peter Fiddick의 말을 빌면, ‘솔직히 여러분 모두는 우리나라 라디오의 장래는 “사정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sup>19)</sup>이라고 한다. 녹서에서는 지역사회 라디오의 발전에 대해 고무적인 말을 하고 있으나,

18) Coleman, P. ‘Broadcasting and the media: report of the Director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broadcasting’, Sheffield City Council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ub-Committee, 16 July 1987.

19) Fiddick, P., ‘Local chiefs fight for the high ground’ *The Guardian*, 9 March 1987, 9.

소규모 지역사회집단이 훨씬 더 작은 예산을 가지고 Douglas Hurd가 그리고 있는 상업적인 라디오의 경쟁적인 사업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간단하게나마 지역사회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미디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책의 독자들은 이를 빌려보거나 구입하거나 간에, 다른 미디어의 독자들보다 더 지역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이와 계층, 교육수준과 도서의 이용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Peter Mann이 관찰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교육수준을 가진 젊은이들이 책을 편안히 대하게 되려면 극복해야 할 거부감들이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sup>20)</sup>

상당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람들이 도서나 그밖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모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형식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시청자들은 때때로 비취지는 것처럼 실제로 수동적인가?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 정치사회제도를 가지면서도 국제적인 텔레비전중계를 통하여 일반적인 사건을 공유하게 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미치게 될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 전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세계인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테올로기와 그밖의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부작용을 갖게 될 것인가? UNESCO에서 '공공도서관을 大衆敎育과 국제적인 이해증진, 그리고 그에 따른 평화증진을 위한 생명력 있는 기구'<sup>21)</sup>라는 신념을 밝혔던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사서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도서관에서 전시는 고사하고 책비무장운동에 대한 공고까지 금지할 경우에는 사서는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이용자의 수준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텔레비전과 영화, 라디오, 도서, 신문, 그밖의 미디어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용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圖書館資料의 이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능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작업에 대한 모델은 매스미디어연구에 종사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용과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의 미디어이용에 대한 스웨덴의 한 연구<sup>22)</sup>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어린이에게는 3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다섯개의 주요포목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오락적 감정적 기능
- 2) 정보전달적 인지적 기능
- 3) 사회적 기능
- 4) 현실도피적 기능
- 5) 소비방식에 관련된 기능. (담당연구자의 말로는 이것은 '매스미디어의 기술적 속성과 이용상황의 양측면에서, 해당매스미디어의 형식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반드시 보거나 듣거나 읽어야만 하는가,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것이다.'<sup>23)</sup>

이 마지막 유형의 기능은 특히 도서에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도

20) Mann, P. *Book buyers and borrowers*, Deutsch, 1971.

21)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49.

22) Van Feilitzen, C., 'The functions served by the media: report on a Swedish study', in Brown, R., ed *Children and television*, Collier Macmillan, 1976.

23) *Ibid.*

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읽을 수 있고 또한 반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서는 私인 活動이며 따라서 대개 사생활이 중요시되는 곳에서 특히 환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와 레코드, 비디오 등에 대해 도서관이용자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정보는 예를 들면 장서선택정책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사서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관련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 자체도 또한 정보와 사상의 원천이 되며,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학의 고유연구분야는 인간'<sup>24)</sup>이라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Jesse Shera였으며, 사서들이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주제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이어서 여기에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모든 공공도서관사서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간혹 사서나 정보과학자, 미디어전문가의 도움없이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을 고려해야 한다. 세필드 이주민의 정보요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우리반의 한 학생은 지역의 상황이 자신에게는 '하나의 대규모의 훌륭한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로 보이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유사한 어떤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민족그룹은 분명히 자체의 네트워크를 갖게 될 것이다. 교회나 술집은 정보와 사상의 중요한 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Greenburg와 Dervin<sup>25)</sup>은 도시빈민에 대한 연구에서 흑인들이 지역의 情報源으로서 미디어 보다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들먹이는지 지적하고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지역사회에서는 또

한 정보탐색행동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골 지역과 도시지역을 비교해 보면 광범위한 입장에서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Wilkins<sup>26)</sup>의 말과 같이, '시골마을에서 얻게 되는 경험에 대한 표본은 서로 다른 정보를 담게 되며, 도시의 환경에서 얻게 되는 정보와는 다른 체제로 되어 있다'. 도시와 시골의 네트워크는 여러가지 방식, 예를 들면 연령과 계층의 측면에서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범위에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시골마을의 네트워크에는 대지주와 농업노동자, 지주와 임금생활자, 젊은이와 노인이 포함될 것이다. 반면에 현대도시의 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그밖의 지역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그와 같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끼어들'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공공도서관이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미디어와 관계를 갖게 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데 할애하였다. 공공도서관이 독특성을 갖게 되는 방식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해당미디어의 기술적 물리적 특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디어의 조직과 미디어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소유자와 이용자, 이용이유, 이용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종이와 印刷資料를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자시스템과 마이크로전자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도서관분야의 양상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10년간에는 '전통적인' 인쇄자료중심의 공공도서관이 모든 범위의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공공자원센터로 모습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은 일반근로자들이 전자적인 정보기술이 만들어낸 제품과 종이와 인쇄물로 만들

24) Shera, J., 'The library as an agency of social communic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21 (11) 1966, 241-3.

25) Greenberg, B. S. and Dervin, B., 'Mass communication among the urban poor', *Public Opinion Quarterly*, 34 (2), Summer 1970, 224-35.

26) Wilkins, L., *Social deviance, social policy and research*, Tavistock, 1964.



어진 제품을 모두 입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o Hedberg와 Marlyn Mehlmann은 일찌기 '인간에게 미치는 컴퓨터의 능력'<sup>27)</sup>을 밝힌 글에서 달성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공도서관은 항상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를 소장해 왔다. 고대세계의 도서관에서는 두루마리(scroll)와 羊皮紙(parchment), 粘土板(clay tablet)을 소장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책을 전문적으로 소장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인쇄술이 등장한 이후의 일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미디어를 제공하고 활용해야 함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뉴미디어나 전통적인 미디어의 기술적 물리적 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과 통정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접근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렵고도 복잡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와 같은 질문을 고려하는 것은 미디어와 도서관과 사회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 2. 情報技術 : 挑戰과 機會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정보라고 부르는 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배분에 관한 문제와, 어떻게 우리가 공공봉사에 의한 정보제공의 기준과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실제로 우리가 이를 유지해야 한다면—, 신기술이 각 시민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문제, 정보산업의 구조와 소유권 및 관리와 그것이 우리가 입수하는 메시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신기술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등이 포함된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시끄러운 파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이웃처럼 행동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도서관계는 정보기술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근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흥미를 깨는 사람의 역할은 그다지 흥미로운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파티를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정보기술이 제공해주는 기회를 모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기술을 에워싸고 있는 요란한 마력과 지나친 商業主義로부터 생겨나는 잡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칫 도서관과 정보 및 교육봉사에 이를 적용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많은 사회경제적 결과를 간과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그와 같은 많은 잡음에 대해 책임을 져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들이 '정보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은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영국의 제조업을 확장시켜 준다는 경제적 잇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sup>28)</sup> 그러나 이와 같은 잇점은 그 자체가 논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인 것에 그칠 우려가 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공공도서관종사자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보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게 될 이익이 아니라 정보산업이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 수행하게 될 역할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사서는 기술보다는 정보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헌정보봉사위원회(LISC: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ouncil)와 같은 단체내에서조차도 논의가 기술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Anthony Smith의 말을 빌리면, '새로운 장치 자체의 기본적인 技術的發明보다도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sup>29)</sup>이 바로 정보와 정

27) Hedberg, B. and Mehlmann, M., *Computer power to the people: computer resource centres or home terminals?: two scenarios* (NORD DATA 81), 1981, 4.

28) Howkins, J., *New technologies, new policies?*, British Film Institute, 1982.

29) Smith, A., *The politics of information*, Macmillan, 1978.

보의 배포인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존해주는 중요하고도,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이다. 그와 같은 역할은 점점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아주 사실적인 의미에서, 장애를 갖게 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더욱 더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기술을 도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정보와 사상에 대한 시민의 권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공공도서관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미 도입된 일부 온라인봉사의 경우에서는, 예술부장관의 최근 발표가 공공도서관은 도서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봉사에 대해서는 使用料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 유선텔레비전이 도입되면서 텔레비전프로그램의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료부과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커뮤니케이션소유자와 커뮤니케이션비소유자 사이의 격차가 엄청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무료로 하기보다는 요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신기술의 비용—상당히 가치적으로 나타나는 비용—때문에 사용료부과를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허울좋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배포하는 데는 언제나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와 같은 비용들이 이전에는 항상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프레스텔(Prestel)스크린의 코너에 나타나는 숫자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비용은 항상 따르게 마련이었다. '전통적인' 수단에 의한 정보제공비용으로는 도서 및

잡지구입비와, 서가공간의 '임대료', 탐색과 검색에 소요되는 직원의 시간 등이 있다. 비용은 이용자의 사용료나 비용산정정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 새로운 요소는 결코 아닌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언제나 그와 같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사와 그밖의 전문적인 정보작업자는 물론, 평등과 민주주의와 같은 인기없는 개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정보와 같이 중요한 자원이 상업의 법칙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로 밝혀 두고자 한다.

정보기술은 우리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公共奉仕의 提供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조절과 확실한 공공투자가 없는 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절, 더 정확히 말하면 규제의 문제는 유선텔레비전과 그밖의 형식으로 된 전면적인 텔레비전의 사업전망이나 위협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최근의 Dimpleby강연에서, Denis For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경제와, 재정구조, 자금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텔레비전에 대해 시장의 영향력—텔레비전방송법과 BBC현장에 담겨진 주의, 즉 텔레비전의 기본적인 목적은 교육과, 정보전달, 오락에 있다는 주의와는 완전히 상치되는... 영향력—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고 안달하고있다.<sup>30)</sup>

방송감시단체인 시청자의 소리(The Voice of Listener)와 같은 일부의 사람들은 라디오에 대한 규제는 사활을 건 경쟁과 공영방송의 이윤추구와 같은 미국라디오제도의 가장 나쁜 측면을 영국에 가져

30) Forman, D., 'Will TV survive the politicians and the media mercenaries?' (The Richard Dimpleby Lecture), *The Listener*, 118 (3020), 26 July 1987, 12-15.

다 주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보와 사상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스칸디나비아의 저명한 평론가에 따르면, '신기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일은 불가능할 것'<sup>31)</sup>이라고 한다.

어느 의미에서 현재는 더 많은 정보가 공공에게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말에서 1970년대초에는 지역사회 정보봉사기관의 범위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일부기관은 新技術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전의 노동당정부는 사회의 불이익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입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두명의 영국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빈곤층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입법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자문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sup>32)</sup>이다.

현재 프레스텔(Prestel)은 정보 및 자문봉사를 가지고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주는 중앙컴퓨터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된 브리티시텔레콤(British Telecom)이 그와 같은 법률가들이 제안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자문을 기꺼이 제공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영국국립전산센터(NCC)소장에 따르면, 프레스텔은 '자문제공기관에서 공공에게 전달하고 자문하는 방식을 혁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주민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자급에 대한 더 훌륭한 가치를 얻게 되며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게 될 것'<sup>33)</sup>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며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브리티시텔레콤은 다른 시장부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홍보자료를 보면, '프레스텔은 정보봉사 이상의 것이다... 프레스텔은 소득세수입에 대한 자문... 포도주케이스에서 패키지관광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나를 신용카드로 가정에서 구입할 수 있는 봉사도 제공하고 있다.' 이용이 제한되는 봉사가 실업자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빈곤층을 위한 것인지의 의문이 생길 것이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봉사가 정보산업진흥의 해였던 1982년에 분명히 우선 순위를 가졌던 것은 아니며, 같은 해에 나온 문헌정보봉사위원회(LISC)의 문헌정보봉사에 관한 보고서<sup>34)</sup>-정보보다는 기술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자료로, 정보를 사고 파는 어떤 것으로 보는 관점을 취한 냉소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에서도 거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情報技術자문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Panel)의 1983년 보고서에도 이어지고 있다. *Making a business of information*이라는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거래가 가능한 정보부문'에 편중된 것으로서, '영국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는 모두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up>35)</sup>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이 컴퓨터 및 전자산업계에서 위촉되었다. 여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대해 전문적인 관심을 가진 인사는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sup>36)</sup> 어떤 공공도서관사서나 공공도서관, 공공봉사를 담당하는 정보봉사단체도 이 위원회의 자문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단 한 측면의 주장만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 같다. 물론,

31) Aner, K., 'Citizen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in *Local govern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Paris, OECD, 1978.

32) Smith, C. and Hoath, D., *Law and the underprivileged*, Routledge and Kegan Paul, 1975.

33) Quoted in Smith, A., 'Prestel, a social service or the rich man's toy?', *The Clapham Omnibus*, 008, Winter 1980, 7.

34)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Office of Arts and Libraries, *The future develop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Information Series No. 12), HMSO, 1982.

35) Cabinet Office, 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Panel, *Making a business of information*, HMSO, 1983.

36) Howking (1982), *op. cit.*

민간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봉사기관이 정보 제공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은 '도서관이... 공공... 봉사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명력있는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그와 같은 사업은 단지 그러한 봉사를 공공의 영역에서 빼앗아갈 뿐인 것이다.'<sup>37)</sup>

신기술이 제공해주는 상호작용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글들이 발표되었으며, 이 분야의 많은 예처럼, 선과 악의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텔레쇼핑(teleshopping)은 집안에만 엮매여 있는 사람이나 불구자에게는 분명히 축복스런 일이 되겠지만, 신용카드와 키패드(key pad)를 통하여 직접 주문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럴듯한 텔레비전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아동텔레비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움직이는 인형 쇼시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인형들이 전송되는 시그널에 의해 활동을 하게 되는 미국의 텔레비전에서는 상호작용적인 주제에 대한 변화가 이미 진행중에 있다.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질과, 그들이 선전하는 가치는 얼른 생각해보아도 미심쩍은 것이지만, 가난한 부모들에 대해 자식들을 위해 독창성은 없으면서 아주 값비싼 인형을 사지 않을 수 없도록 더욱 가해지는 압력도 고려해야 한다. BBC와 ITV회사가 영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유선 및 인공위성회사들은 비교적 값이 싸고 아주 중요한 商業的인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쇼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zing)이다.

중앙집중식의 보안관리는 또하나의 발전분야이다. 이것도 역시 장단점을 가질 수 있다. 계량기읽기와 그밖의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호작용적인 시스템은 우리로 하여금 '텔레비전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똑같은 기술이 우리의 말을 엿듣고 우리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도 사

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자시대에 있어서는 벽이 귀 뿐만 아니라 눈까지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잘 만들어진 법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 되고 있다. 런던시의 정보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 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이 친구의 신용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서 남는 시간을 때웠던 사실을 말해주었다.

즉석국민투표(instant referenda)와 같은 그밖의 생각들은 솔직히 놀라운 것이다. Saatchi and Saatchi와 같은 회사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비누가루처럼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환영할 것이지만, 점차 복잡해져가는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Information Age*의 아주 진지한 글에서, 영국국립전산센터의 Philip Virgo는 '교수형, 학교에서의 체벌, 공공운송료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한 소위 상호작용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물론 전화투표와 같이, 그 결과가 유선 및 프레스텔과의 연결요금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지불하게 될 부유하거나 의사표현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향될 것이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압력집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정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의사표현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다.<sup>38)</sup>

情報貧困層은 특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 같다. 얼핏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이상스런 견해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러티라시를 갖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견해인 것이다. 몇년전에 본인은 독자의 40퍼센트가 *The Sun*이 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37) Roszak, T., *The cult of informantion*, Cambridge, Lutterworth Press, 1986.

38) Virgo, P., 'Political asp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Age*, 5 (4), 1983, 199-204.

아마도 *Sun*의 독자에 대한 Jasper Carrott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잘못 알려진 정보를 얻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석 또는 그밖의 형식으로 된 민주주의에 대한 좋은 징조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앞장에서 한 공공도서관이 매스미디어의 여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와 학교도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신문과 텔레비전, 그밖의 매스컴산업제품을 '읽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원문' 비평, 즉 매스미디어의 내용분석과 비판적인 분석은 적어도 영문학의 원문에 대한 일부의 평가 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교육학자들을 도와 주기 위해, 셰필드도서관 미디어부에서는 *The television programme*<sup>39)</sup>이라는 실습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미디어리터라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리게 되는 문화를 개발하는 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hilip Pacey는 '권총에서 뽑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미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더욱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무력해져 버리는 것이다.'<sup>40)</sup> 이미지와 어떤 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표현, 청중의 행동 사이에 항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디어는 합의에 대한 합의적인 견해를 강화시켜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구조적, 경제적, 직업적, 이데올로기적, 기술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상업적인 이익과 정보제공을 혼합시키는 데는 분명한 위험이 따르게 된다. 또한 신문과 같은 情報源은 점점 더 적은 수의 사람의 손에 집중되고 있다. 똑같은 패턴이 신기술에도 이어지고 있다. Vinken<sup>41)</sup>에 따르면, 50퍼센트 이상의

유럽온라인시장을 세계의 미국회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상호주식보유와 관리를 통하여 통신 정보기관을 서로 그리고 종합적인 대기업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못지 않게 지역적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몇년전 셰필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셰필드에 살면서, 아침식사 후에는 *Morning Telegraph*를 읽고, 일하는 동안에는 Radio Hallam을 들으며,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Yorkshire TV를 켜게 된다면, 여러분은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이 행운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United Newspaper의 주주들도 공감할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신문과, 라디오방송국의 13퍼센트, TV방송국의 8.2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TV방송국은 또한 라디오방송국의 9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United Newspapers에 5.7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운을 가진 주주의 하나가 BET(British Electric Transaction)이다. BET는 런던과 Home Counties(런던주위의 여러 주)에서 53개의 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Thames TV의 절반과 Capital Radio의 16퍼센트—둘 모두 런던에서 운영—를 소유하고 있다. 동시에 Thames TV의 회장인 Lord Barnetson은 또한 United Newspapers의 회장이며, BET의 부회장으로서, 지난 가을까지는 *The Observer*의 회장을 지냈다.<sup>42)</sup>

그 글이 발표된 후로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예를 들면 *Morning Telegraph*는 United Newspaper에 의해 폐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

39) Sheffield Media Unit, *The television programme*, (available from Sheffield Central Library), 1987.

40) Pacey, P.,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universal availability of images', *IFLA Journal*, 9 (3), 1983, 230-5.

41) Vinken, P., 'Information economy, government and society', *Asilb Proceedings*, 34, (8), August 1982, 329-49.

42) 'The mass media in minority hands', *Labour Research*, April 1981, 74-6.

가 세필드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자료의 실제적인 다양성을 증진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앞서 인용한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류의 상호연결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 메시지에 대해 항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잠재적인 권력과 통제의 근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점차 많은 양의 정보가 미래에는 전자시스템에만 저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개인적인 욕망이나 빈곤, 지리적 위치, 그밖의 이유로 인하여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는 개인과 집단'<sup>43)</sup>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Welcome to my world*에서 William Melody 교수는 '한때는 大學圖書館에서 찾아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제적인 온라인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비싼 값을 치루고 접근해야만 하는 중요한 보고서와 논문을 많은 학생들이 더이상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sup>44)</sup>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보통시민이 정보와 사상에 대한 접근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하나의 직업으로서 우리는 공공도서관봉사가 이와 같은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기술이 우리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지역사회의 성격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가 있다. Max Frisch는 기술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상을 엮어놓는 교묘한 재주'라고 어느 곳에선가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VDU와 컴퓨터콘솔 앞에서 일해야 한다면,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학교와 도서관과 같은 지역사회봉사기관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공도서관은 종이와 인쇄자료중심의 시설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 한 작가는 우리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도서의 대출에는... 어떤 경쟁자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독서의 증진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우리는 다시 강조하게 된다'<sup>45)</sup>고 제안한 적이 있다. 정보기술은 정보의 수집과 축적, 전송, 검색, 처리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 이것은 도서관학에 적용되는 것과 별로 다르게 없는 설명이다.

아마도 情報通信奉仕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 전선을 깔아주는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발전된 정보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센터를 공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인쇄자료중심의 도서관이 전반적인 범위의 정보자원을 제공해주는 공공센터로 급속하게 변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Theodore Roszak에 따르면, '전산화된 정보봉사가 사회에서 갖게 되는 자연스런 위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공도서관인 것이다.'<sup>46)</sup> 우리는 이미 미국의 '매기의 집'(Maggie's Place)에 그와 같은 종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과 자료관리, 열람정보, 통신을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그와 같은 기술적인 발전은 공공 도서관사서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선봉사는 공공도서관봉사에 대한 전 자적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런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영국의 현정부의 정책에서는 지방당국이 유선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종사자들은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일부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sup>47)</sup> 하나의 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친밀성은 북

43) Smith, A., *The politics of information*, Macmillan, 1978.

44) Quoted in the BBC Television series *Welcome to my world*; scripts published by BBC Television Continuing Education, 1987.

45) Neill, S. D., *Libraries: why books?*, Edmonton, Alberta, Culture, 1985.

46) Roszak (1986), *op. cit.*

47) Dewey, P. R., 'A microcomputer in the Chicago Public Library for staff and public use' *Illinois Libraries*, 64 (7), 1982, 880-4.

잡한 시스템에 부딪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정보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계통에 따라 지방당국에서 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기술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해주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입수하려 하지 않거나 입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公共資源센터의 개발은 고립된 가내작업이나 가내정보환경, 가내오락환경에서 놓치게 될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정보와 사상의 커뮤니케이션은 공공도서관종사자의 중요한 관심거리이며, 이전에도 항상 관심거리가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도서관사서를 셰라(Jesse Shera)의 말대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아닌,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데이터'<sup>48)</sup>를 가진 단순한 정보기술자로 간주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이용자들을 혈값에 팔아치워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신기술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식은 여러 사실들을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직의 미래상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선택이 아닌 라이브웨어(liveware)의 질에 좌우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사서에 대한 평가는 현재 및 잠재적인 이용자의 요구와 희망, 열망에 대한 사서의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도서관협회의 공동발기인인 Ken Dowlin은 몇년전에 런던의 청중들에게 우리 직업의 중요한 도전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sup>49)</sup>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에 관한 논의는 기술에 관한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우리의 직업과 政治的인 價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Richard Hoggart는 '완전히 부적절한 사회적 문화적 컴퍼스

와 키를 가지고'<sup>50)</sup> 정보시대에 진입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기줄로 이어진 사회로 들어가기로 앞서, 우리가 찾아낸 것들을 멈추어 확인하고 경청하고 분석하는 것도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 3. 知的自由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전송되고, 형태를 갖추고, 처리될 수 있는 몇가지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고 접근을 제한시키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역시 정치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당시대 정부의 견해와 태도에 좌우되고... 검열을 시행하는 모든 정권은 새로운 발표와 상세한 해설, 반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sup>51)</sup> 이러한 주장은 Peter Wright사건에서 영국정부의 조치가 영국텔레비전으로 하여금 이전에 戰時에 유보되었던 보도제한에 관한 일종의 성명을 뉴스보도나 남아프리카로부터의 보고에 앞서 제시하도록 한 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모든 종류의 정보전문직 사이에서는, 국민들의 정보와 사상에 대한 접근권에 대해 가해지는 점증하는 제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공공지출의 삭감과 지방정부입법의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이다. 입법의 변화로 인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지방당국, 지역사회정보봉사기관, 그밖의 광범위한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우울한 배경과 함께 일부의 전통적인 검열이 재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제는 아주 문자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서구세계에서는 어떤 형식의 검열에 대한 열광은 대개 특정형식의 정치철학과 손을 맞잡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980년의

48) Shera, J, quoted in Machlup, F., and Mansfield, V., *The study of information*, New York, Wiley, 1983.

49) Dowlin, K., reported in 'Library pioneer looks ahead', *Information World Review*, 2 March 1987, 7.

50) Hoggart, R., Foreword to Howkins (1982), *op. cit.*

51) Calder, J., 'The return of the censors', *Index on Censorship*, 13, (5), October 1984, 2.

ALA yearbook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전략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급격히 밀려드는 보수주의운동은 현대사회의 죄악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함을 사용하는 80년대로 걸음을 옮기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52)</sup>

이미 알고 있듯이, 보수당의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일련의 禁書活動이 시작되었고 국가의 정치적인 풍토가 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다.'<sup>53)</sup>

백악관과 다운닝가(Downing Street) 10번지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철학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영국정부는 Frank Hooley가 제안한 '정보의 자유' 법안을 효과적으로 묵살하고 Blunt 스파이사건을 폭로함으로써 정보보호법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설득당했을 뿐이다. Williams 음란 및 영화검열위원회의 그런대로 괜찮은 제안도 결국은 무시되어 버렸다. 여러분들은 이 제안에서 '이 분야의 기존의 다양한 법률은 폐기되고 포괄적인 새로운 법령이 새로이 시작되어야 한다'<sup>54)</sup>고 주장하고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물론 남아프리카나 이란, 소련에 비하면, 영국은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가 상당히 그리고 점차로 더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도서와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프로그램이 영국에서는 현재 검열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현명함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법률들이 시민의 정보와 사상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의회의 조례와 관습법, 도처에 존재하는 공모된 법률들이 모두 어떤 방법으로도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음란출판물규제법 1959 및 1964
- 관세통합법 1876
- 아동 및 청소년(유해출판물)법 1953
- 우편법 1953
- 비요청제품 및 봉사법 1971
- 도시경찰조항법 1847
- 부랑자처벌법 1824 및 1838
- 영화법 1909 및 1952
- 유곽법 1751
- 외설물전시(규제)법 1981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곽법은 사문화된 법률이 아니다. 이것은 클럽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곤 하며, Gay News에 대한 고소는 일부의 아주 오래된 불경죄법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최근의 일로는 1988 지방정부법의 악명높은 28조를 만들어낸 1988 지방정부법에 대한 보수당의 하원수정안은 적어도 한 법률적 견해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에서는 동성연애를 자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文學作品을 서가에서 제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sup>55)</sup> 훨씬 더 많은 법률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걱정스런 것은 텔레비전프로그램이 음란출판물법의 규정 아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법률에서 음란에 대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음란출판물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네개의 주요도시에서는 각각 자체의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많은 일반법률과 지방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혼란과 많은 법령 이외에도, '음란'에 관한 법률은 몇가지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음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음란은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정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잘못된 법률이 생겨나오

5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yearbook, Chicago, 1980.

53) Warner, L., 'Running battle of the library shelves',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13 March 1981, 14.

54) Home Office. Report of the Committee on obscenity and film censorship, (Williams Committee), HMSO, 1979.

55) Advice given to Manchester City Council. Reported in 'Tory clause to suppress gay life', The Guardian, 12 December 1987, 3.



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합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인간의 사적인 동성연애행위)를 묘사하는 것은 불법인 반면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살인이나 절도)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작가와 출판사, 프로듀서 등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재판의 상례가 뒤바뀐 것이다. 또한 다음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비밀보호법과 절차는 정부와 그밖의 관공서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제한한다.

정치적인 검열은 사실상 대중적인 출판사를 흥분시키는 性과 暴力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어느 의미에서는 모든 검열이 정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보배포의 자유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이상이기 때문이다. 루즈벨트가 '제일의 자유'라고 한 그와 같은 자유의 제한은 따라서 정치적인 행위이다. 불행히도 최근의 역사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행위의 예는 수없이 많다. *Holocaust*가 특별히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우리에게 John Calder의 말대로, '焚書는 파시스트적 행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데는 도움을 주었다. 당시에 독일에서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엄격한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으며,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이 엄격하였다. 더 최근에 이르러서는 케이프타운도서관장이 연간보고서에서 13년동안에 약 13,000종의 출판물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도서관장은 소장하기 위해 구입한 뒤 거의 1,000종의 도서를 제적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기간에 케이프타운대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상호대차를 통한 도서의 대출허가를 금지시켰다. '감정을 헤치는' 도서의 하나는 H.J. Simon의 *Legal status of African*

*women*이었다.

동구권에서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에 도전하거나 이를 의문시하는 사상과 이에 대한 폭로를 탄압하고자 하는 여러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슬제니친과 다니엘, 시냐프스키의 경우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국 AAL은 러시아의 사서 Reizia Palatnik를 석방시키기 위해 벌인 노력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sup>56)</sup> 러시아의 침공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제거해야 할 도서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국립도서관의 특수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당시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모든 도서관에 대한 광범위한 비밀리의 정화작업이 현재 여러달째 계속되고 있으며 곧 완료될 예정이다. 최근까지는 독자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단지 서가에서 제거되었던 수 천권의 禁書들이 현재는 펄프로 만들기 위해 도서관으로부터 신중하게 옮겨지고 있다. 그밖의 것들은 비밀리에 따로 보관되고 있다.

그와 병행한 도서관목록의 제거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금서에 대한 모든 색인은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는데, 도서가 저자와 주제에 의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이 되고 있다.<sup>57)</sup>

정치적인 검열은 그러나 소련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맥카시(McCarthy)시절에 미국의 도서관에서는 소위 적색선전물을 추방해야 했다. 옛날의 베티데이비스의 영화, *Storm centre*에서는 위험한 책을 서가에서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공공도서관사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그 영화를 보면 결점투성이이고 멜로드라마적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정치적 檢閱의 危險性을 다룬 것은 용기있는 시도였다. 후에 미국역사에서는 닉슨이 워터게이트이야기에 접근한 지방라디오방송국의 특권을 박탈하고자 여러번 시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6) 'The agony of Reizia Palatnik, *Assistant Librarian*, 64 (10), 146-9.

57) 'Purge of books in Czech libraries', *The Times*, 7 August 1973, 5.

불행히도 체코슬로바키아의 보고서를 반복하고 있는 보고서를 인용하면, 1980년대에는, ‘미국전역에 걸쳐 공공도서관은 서가로부터 비도덕적이고 외설적인 도서를 제거하고자 하는 우익정치집단의... 포위망속에 싸여 있었다.’<sup>58)</sup>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Oz* 사건과 *The little red school book*에 대한 고소를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사건에 대해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다루는 데는 어느 정도의 간섭이 있어 왔으며 많은 텔레비전과 라디오프로그램에서는 갑작스런 ‘취소’도 있었다.

외설에 대한 비난이 때로는 정치적인 관점을 탄압하기 위한 양해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Oz* 잡지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James Baldwin의 도서가 미국의 남부지방에서 추방되었을 때 외설이 실제이유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도서관학교에서 몇년간을 공부하면서 본인은 이러한 견해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얻게 되었다 :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공공의 생활은 성적인 사상과 자극으로 이루어진 온실과도 같다... 만일 우리가 젊은이들을 그들이 오늘날 처한 환경의 곤경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속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정화는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극장과 예술, 문학, 영화, 신문, 포스터, 창문디스플레이에서 우리의 부패한 세계에 대한 모든 표현을 정화시켜야 한다... 공공의 생활은 우리의 현대에 로티시즘이 뿜어내는 숨막힐 듯한 향수냄새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sup>59)</sup>

이 장의 말미에 있는 참고문헌목록을 들여보기에 앞서 독자들은 스스로 인용문을 찾아 확인하고 싶어

질 것이다. 분명히 검열은 예를 들어 다른 社會秩序나 다른 형식의 사회적 관계, 예를 들면 게이와 레즈비언의 관계를 그린 자료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회적 통제의 형식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경험세계를 탐구하는 저작은 검열의 풍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약물이나 약물에 관련된 경험에 관한 저작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리하여 몇년전에는 많은 도서관들이 도서관으로 하여금 *Connoisseur's handbook of marijuana*를 소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압력단체에 대하여 싸움을 벌여야 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교장(*The little red school book*)이든 정부이든, 권위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저작은 스스로 법정에서 서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된다. 따라서 사회는 그것이 동양에 있는 서양에 있던 새롭거나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억압된 사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대중주의자의 검열에 대한 논의는 성과 폭력, 극단적인 고통과 즐거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Alan Segal<sup>60)</sup>은 검열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관념을 보존하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구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동물처럼 행동하게 되면 존엄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Segal의 논점은 성과 폭력은 모두 동물세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와 같은 위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존엄성을 갖지 못한, 즉 동물적인 행위에 대한 공적인 묘사는 그것이 영화에서건, 책에서건, 텔레비전에서건, 극장에서건, 어느 면에서는 검열이라는 생각을 유발시키게 된다.

많은 논쟁은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 즉 자료를 수집하고 공공에게 최대한으로 이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사서로서의 우리의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

58) 'War on "indecent" library books', *Times Higher Educational Supplement*, 2 January 1981, 3.

59) Hitler, A., *Mein Kampf*, Noontide, 1986.

60) Segal, A., 'Censorship, social control and social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1 (1), March 1970, 63-74.

들에게 명백한 扇情的 또는 폭력적인 자료를 접근하도록 해줌으로써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범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명백한 선정적 폭력적 자료에 접한 보통사람들이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물론 도서나 영화가 결코 어떤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아주 어리석은 말이 되겠지만, 이것은 자료의 유형과 그 자료에 접한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가학피학성변태성욕자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상을 보고도 흥분을 일으킨다고 한다—그러나 우리는 삽도가 그려진 성경을 추방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1972년의 영국도서관협회회에서 발표한 논문<sup>61)</sup>에서 본인은 많은 비슷한 예들을 들었으므로 여기에서 이를 모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어떤 독자가 어떤 책이 성적인 자극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떤 책이 그들을 웃기거나 울린다고 불평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증거가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자료가 보통사람들에게 반사회적인 활동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또하나의 아주 자연스런 반응을 왜 금기시해야 하는가?

주제의 감정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참고로 하는 몇가지 증거자료들을 인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 예로 미국포르노그라피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명백한 선정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청소년이나 성인의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원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sup>62)</sup> 또한 영국예술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

고 있다: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에 유해하리라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없는 한 개개시민으로 하여금 文學이나 藝術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할 상황은 없다. 그와 같은 증거는 없는 것이다.'<sup>63)</sup> Lord Longford조차도 자신의 보고서에서 '극소수의 경우에만이 포르노그라피와 반사회적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결과적으로 입증되었다'<sup>64)</sup>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이나 시각예술이 현대사회의 다른 많은 측면에 비해 보통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부패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주는 증거는 거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인생이 타락하거나 부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독자들은 앞서 인용한 자료의 상당수는 1960년대에 발행된 보고서에서 따온 것임을 주목하였을 것이다. 선정적인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자료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증거는 거의 없는 반면, 그 이후로 사회적 정치적 풍토는 분명한 변화를 겪었다. 한 작가의 주장처럼, '대체적으로 볼때 영국에서는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10년간에는 비교적 자유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는 적어도 10년간의 죄악과 퓨리타니즘(Puritanism)과 검열과 금지에 불법행위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sup>65)</sup>

John Sutherland는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풍뎡보와 요조숙녀, 할머니들로 이루어진 검열 찬성로비가 이루어졌던 1960년 이래로 정설은 바뀌어가고 있다. 1970년대에는 일관성있는 '계몽적인 검열'이 이루어졌다... 1980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여성들이 포르노그라피를 아주 싫어하고, 이

61) Usherwood, R., 'Literature and obscenity', (with David Gerard), *Proceedings of the Public Libraries Conference Brighton 1972*, Library Association, 1972.

62) *Report of the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New York, Bantam Books, 1970.

63) Arts Council Working Party, *The obscenity laws*, Andre Deutsch, 1969.

64) *Pornography: the Longford Report*, Coronet Books, 1972.

65) Kureishi, H., 'England, bloody England', *The Guardian*, 15 January 1988, 19.

를 1960년대의 병에서 나온 나쁜 마귀로 간주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6)</sup>

이것은 아주 이상스런 연관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면 채널 4에서 최근에 *The knack*를 방영하였을 때 원작영화의 배포당시에 Mary Whitehouse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비판을 당시의 페미니스트(feminist)들로부터 불러일으켰다. *Lady Chatterley*의 시도를 분수령을 만든 어떤 것으로 보는, 작가와 같은 사람에게 더욱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예의 로렌스의 작품이 *The Guardian*에 기고된 페미니스트에 의해서는 '유치한 음란물'과 '성을 억압하는 파시스트소설'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67)</sup> 실제로 상당수의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분석에서는 60년대의 전체적인 풍조를 조롱하고 있다. 예를 들면 Andrea Dworkin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정책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새로운 포르노그래피산업은 좌익산업이다. 특히 60년대의 소년에 의해 단순한 즐거움으로, 푸짐한 재미거리로, 공공의 재미거리로, 브르즈와의 집에서 모든 남성의 민주적인 소비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술집여자로서 인기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포르노그래피는 좌익이며, 새로운 포르노그래피는 좌익이 잠들게 될 거대한 묘지인 것이다. 좌익은 자신의 여자도 자신의 정책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sup>68)</sup>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검열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 그 문제의 性政策을 간과하였음은 아마도 사실이었지만, 일부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엄중한 조치가 아주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더 이해가 가는 입장은 어린이에게 미치는 자료의 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일 것이다.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어린이에 대한

모든 영향을 참작해야 한다. 일부의 연구실험에서와 같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열쇠를 채워두고 계속적으로 포르노그래피와 폭력에 접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많은 다른 자극을 겪게 된다. 음란영화나 출판물, 부적절한 텔레비전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정과 학교, 교회, 가족, 보통어린이들이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는 다른 많은 것들의 영향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실제로 어린이로 하여금 성에 대한 관심을 죄스럽거나 더러운 것으로 느끼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많은 해를 입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다. 런던정신병원의 대표적인 상담요원의 말을 빌면, '내 경험으로는 환자의 상태가 성에 노출되어서 생겨난 환자는 만난 적이 없지만 무지와 두려움, 죄의식이 많은 정신질환과 불행 을 야기하고 있는 예는 수없이 많이 접하고 있다'<sup>69)</sup>고 한다. 물론 이것은 어린이포르노그래피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비열한 사업으로 해당어린이에게는 분명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유명한 BBC의 격언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 격언은 비록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옳과 옳 사이에서 우리는 공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 구분이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리와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다음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남녀차별주의에 대한 자료의 조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사서는 지적자유라는 개념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그밖의 지역의 사서들은 그와 같은 자유를 지키고 감시하기 위한 직업적인 메카니즘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전국적인 양상을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정도에 대해서는 만족

66) Sutherland, J., *Offensive literature*, Junction Books, c. 1982.

67) Quoted *ibid.*

68) Dworkin, A., *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 Women's Press, 1981.

69) Quoted in Arts Council Working Party (1969), *op. cit.*

도가 위험수위에 육박할 것이고,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그밖의 압력에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와 사상을 배포해오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와 같은 자유는 중요한 것이다. 현재 그와 같은 자유는 침해되고 있으며, 아마도 지금이 영국도서관협회가 우리 직종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지적자유 개념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적기가 되리라고 일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영국도서관협회에서 또 하나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적자유 문제는 공공도서관학,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도서관학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전문직협회에서는 이를 이 분야에서 더욱 가시화시켜야 할 것이다.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법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1) 정보와 사상의 접근에 가해지는 제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함으로써
- (2) 전국적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을 감시함으로써
- (3) 미국도서관협회의 예를 따라 그 주제에 관한 독서자료를 발행함으로써
- (4) 회의와 출판물, 모임, 유사한 활동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직업적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 (5) 적절한 환경에서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법률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 (6) 적절한 시기에 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ies와 국제사면위원회, 노동조합과 같

은 그밖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여러분도 물론 그밖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개개의 사서들이 때로는 자료의 선정에 있어 더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고 있고, 실제로 어떤 사서들은 더 많은 검열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외의 대다수 도서관전문직들은 Bernard Berelson이 일찌기 1938년에 보였던 견해를 택하고 있다. 그것은 '도서관학은 도서수집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검열에 확고하게 대항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sup>70)</sup>는 것이다. 미국도서관협회의 權利章典(Bill of Rights)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공공에 대해 정보와 계몽을 제공하는 책임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검열에 대항해야 한다'. 아울러 '도서관은 자유로운 표현과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박탈에 대항하는 데 참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sup>71)</sup> Williams위원회에 대한 증거자료에서 영국도서관협회는 '우리가 회원들로부터 접수한 증거에서는... 새로운 법률로 뒷받침하고 있는 더욱 엄격한 검열에 대해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sup>72)</sup>고 밝히고 있다. 그와 같은 새로운 법률을 현재 상황에서는 묵살해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종사자는 자유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마음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지적자유편람에 따르면, '지적자유 제원칙에 대한 많은 도전은 단지 효과적인 대응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거되지 않고 있기'<sup>73)</sup> 때문이다.

#### 4. 情報의 自由와 公共圖書館

'Peter, 당신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탈

70) Berelson, B., 'The myth of library impartiality', *Wilson Library Bulletin*, 13 (2), October 1938, 87-90.

7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Library Bill of Rights, first adopted on 18 June 1948 and subsequently amended by ALA Council.

72) Library Association, Library Services Committee, 'Evidence to the Committee on Obscenity and Film Censorship appointed by the Home Secretary (Chairman: Professor Bernard Williams)', LSC185, May 1978.

7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tellectual freedom manual*, Chicago, ALA, 1974.

이야.<sup>74)</sup> Peter Wright가 지은 *Spycatcher*의 마지막 문장은 영국사회를 적절하게 꼬집고 있다. 왜냐하면 비밀이 너무나도 많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정보와 사상의 조직에 관여하는 전문직의 일원으로서, 공공도서관사서들은, 영국의 경우, 정보의 접근에 가해지는 제약에 대해서는 늦게서야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소수의 대표적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서들은 최근까지도 비밀을 조장하는 법률과 절차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영국도서관협회 산하 情報의 自由실무위원회(Freedom of Information Working Party)의 첫 번째 모임은 1980년 11월에야 이루어졌으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우리분야의 전문학술지에서도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79년에 발표한 글에서 Kevin Mahony는 '정보의 자유문제에 대한 영국사서들의 태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개혁에 대한 열의의 부족은 다른 나라의 사서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보이고 있는 열정과 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sup>75)</sup>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도서관분야문헌을 살펴보면 미국의 사서들은 이 주제에 관하여 거의 20년 가까이 관심을 보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서들은 이미 9년전에 정부에 대해 정보의 자유에 관한 포괄적인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다.<sup>76)</sup> 물론 그밖의 일부국가의 정부는 영국정부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일반의원의 법안을 제출하였던 하원의원을 지낸 Frank Hooley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비밀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sup>77)</sup>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스웨덴에서는 1776년 이후로 어떤 형태의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7년에 법률을 받아들였으며,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1970년 이후로 '행정파일의 자료에 대한 공공의 접근'에 대한

법령을 갖추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78년에 법률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에 프랑스에서는 모든 지방 및 국가정부기관과 공공사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문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확보해 주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최근에는 네델란드와 캐나다에서 이 분야의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리스와 일본, 스페인, 스위스에서도 법안이나 법령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기밀법에 대한 첫 번째의 중요한 시도는 지방정부(정보접근)법이 발효한 1981년 4월 1일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중앙정부나 많은 다른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정부가 이러한 유형의 입법을 위해 선택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다. 그 자체로 그것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환영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이후로 정부에서 더 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988년초에 정부에서는 정부의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서 公務員機密法(Official Secrets Act)을 개혁하기 위해 일반의원의 법안을 제출했던 보수당의 하원의원 Richard Shepherd에게 긴급동원명령을 내릴 정도로, 정반대의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나서 겨우 며칠 뒤에는(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기로 한 바로 그날에), 내무부장관이 B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률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분명히 공무원이 사용하는 일회용차(tea bag)의 상표명을 지적하는 것을 기술적인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부의 아주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이 삭제될 것이지만, 동시에 기밀자료에 관한 '보호'정도는 증가될 것이다. 그밖의 사항은 공무원교육과정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로는 무엇이 기밀자료로 간주되어야 할지에 대해 누가 결

74) Wright, P. (with Paul Greengrass), *Spycatcher*, Victoria, Australia, William Heinemann, 1987.

75) Mahoney, K., *Some possible implications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 services of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unpublished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1979.

76) 'Freedom of information', *Australian Library Journal*, 16, March 1979, 53-60.

77) Hooley, F., 'The right to know', *The Star* (Sheffield), 2 February 1981.

정을 내리게 될지가 분명하지 않고, 해당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대해 '公益'의 보호가 허용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의회주의자와 저널리스트, 정보작업자, 그밖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업무에는 비용의 문제나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당화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인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문로비스트 Des Wilson에 의해 1984년에 시작되어 이제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정보의 자유' 캠페인(Freedom of Information Campaign)은 보수당을 제외한 일부의 보수당원들이 개인적으로 이 캠페인을 지지하고는 있으나—모든 주요정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더구나 Douglas Wass와 같은 전직고위공무원들은 '상당수가 기밀에 대한 주장에 회의론을 품고 있다.'<sup>78)</sup>

정보의 소유와 권력에 대한 잠재력 사이에는 분명한 상호관계가 있으며, 많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여러분이 정치적인 과격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임금협상에서 한쪽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 다른 분야의 예를 들면 제품의 소비자와 이를 생산판매하는 회사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업단체나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시험보고서나 그밖의 정보는 참고하지도 못한 채, 광고라고 하는 흥행사업에서 보여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기밀법의 제2부와, 30년규칙, 공무원을 지배하는 여러 규칙의 논쟁 규정은 그밖의 법률 및 법적관계와 함께, 모두가 이러한 불균형을 지속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시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이와 같은 제한은 당대의 문제에 대해 그들이 알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거나 국가

나 지방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 자체로서 이것은 民主主義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 기관에서는 정부에 대한 접근이나 그 출판을 방해함으로써 무능력과 경영부실, 자원낭비 등을 숨길 수 있다. 어떤 정보는 숨겨두고 선택된 자료만을 흘려보냄으로써, 국가정부나 지방정부는 지방의 우회도로문제이든 Belgrano의 침몰문제이든,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만이 아니라 민선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도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하원의원이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주제가 거의 100가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하원의원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도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개인과 그들의 요구에 대해 봉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 및 지역사회사서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로서의 구매활동이나 복지권, 고용장소에서의 작업조건과 안전, 생활환경의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의 제공을 기밀법이 가로막고 있는 방법일 것이다. 후자의 예로서 Frank Hooley는 체온저하법(hypothermia)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많은 사망에 관한 별도의 연구 결과를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의 문제 외에도, 기밀법의 존재와 시행은 역사적 연구와 같은 학술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나 일부의 과일들이 100년 이상이나 되는 오랜기간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규칙은 특히 교도소문제와, 산업적인 분쟁, 스코틀랜드국민당에 대해 내려진 조치에 관한 정보에 적용되고 있다.

어떤 효과적인 형식으로 된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게 되면 공공도서관사서들은 자신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78) Wass, D., Opening up government (Reith Lecture), *The Listener*, 110 (2837), 15 December 1983, 12-14.

이다. *New Statesman*에서는 몇년전에 리버풀공공도서관의 직원이 여러 회사에 관한 사실을 수집하느라 겪었던 어려움을 잘 보여주었다.<sup>79)</sup> 계속된 인터뷰에서 담당사서는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관공서의 情報源에서 정보를 입수하느라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밀법은 물론, 정리방법이 부실하여 공공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자료에 대한 접근이 곤란했기 때문이었다’<sup>80)</sup>고 밝히고 있다. 만일 그가 오늘날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HMSO의 가격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는 그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문헌은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역사회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부의 소규모기관에서는 분명히 접근이 어렵게 되었다.

사서와 정보작업자, 일반대중들은 국가의 안전과는 거의 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분야의 정보를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새차를 하나 사려고 하는 사람은 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안전보고서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서 또는 실제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통부에 무료로 전화를 걸어 각종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결함을 알려주는 목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영국생산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의 80 내지 90퍼센트가 17건에 달하는 안전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국안전위원회와 소비자단체에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시켜서 누구의 이익에도움을 주고 있던 말인가?

패키지관광은 또한 하나의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매년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여행과 휴가계획에 관계된 展示會를 열거나 관련도서목록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여행회사의 재정능력이나 여행선의 위

생기준과 같은 이 분야의 중요한 정보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입수할 수가 없다—물론 일부의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스웨덴이나 미국의 법률을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때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글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결함을 가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교통부장관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1950년대에는 또한 공장감독관이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있었던 것이다. 30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공중들은 위험한 식품첨가제에 관해 농업부장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충분히 살펴볼 수가 없다.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정보를 공격적인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더구나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이전에 입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최근에 발생한 한 경우를 보면, 소비자단체에서 정부의 식품과학자와 동시에 새로이 제안된 요리용 패트대체품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초기단계에 그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1980년의 식품표시규칙(Food Labelling Regulations)에 의해 제품의 레이블에 나타나는 정보의 양은 늘어났다. 그러나 가격과 포장 못지 않게 E 넘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다소 세련된(그리고 형편이 더 나은?) 구매자일 것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것은 ‘정보제공과 소비자교육, 시장개발 사이의 구분이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sup>81)</sup> 분야인 것이다.

消費者情報은 지역사회정보라는 광범위한 영역의 일부이다. 공공도서관사서와 정보작업자들이 이 분야에 개입하게 되면 그에 따라 그들과 이용자들은 모든 종류의 규제법과 절차에 따른 방해를 받게 된

79) Rohrer, R., 'Company facts revealed', *New Statesman*, 97 (2496), 19 January 1979, 67.

80) Mahoney (1979) *op. cit.*

81) *The UK information industry: current issues: fact sheet 9, Public rights of access to information*,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nd.



다. 예를 들면, 공무원을 지배하는 공식적인 규칙에서는 빈민지원금관리소(supplementary benefit office)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객들에게 부서의 정책 설정이유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또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적어도, 일부의 빈민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안과 정치적인 갈등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많은 사람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관해 관리되고 있는 많은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DHSS와 지방교육당국, 의사, 내국세수입관리소, 신용카드회사, 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 보험회사, 차량면허센터, 고용주, 공공도서관, 영국도서관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일에 올라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거의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소위 '사실 정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상황을 벗어날 경우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일부의 파일에는 우리나라 우리의 가족이 접촉하게 되는 공무원의 견해와 편견이 담겨질 것이다. ACE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의 기록이 '술집과 세탁기대여소에서 나누는 잡담의 수준을 거의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풍문과 편견, 어깨너머로 들은 의견으로 뒤죽박죽된 경우가 많다'<sup>82)</sup>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전교육과정에서 걸쳐 따라다니게 될 기록인 것이다. 이미 1972년에 청소년위원회(Younger Committee)<sup>83)</sup>에서는 개개인은 자신에 관하여 어떤 종류의 기록들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와 같은 자료를 수정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타당하고 필요한 제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결국 데이터보호법은 전자형식으로 저장되거나 준비되는 정보에만 관련된 것일 뿐이다.

동시에 우리는 개개인에 관한 個人情報가 원래 수집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도서관종사자는 영국도서관협회의 행동규약에서 도서관이용자에게 도서관조직에서 수집한 정보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보장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 자체를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보호는 컴퓨터가 어떤 개인의 '프로파일'(profile)—오도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파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대조를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소비자협회의 말을 빌리면, 그와 같은 기록은 '정부나 대기업체, 반체제 단체에 제공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sup>84)</sup>

이미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법률도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그와 같은 종류의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개개시민에게 분명한 위험성을 갖는다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영국은 '오몰메이다', 즉 원래 생겨난 나라에서 관리한다면 불법이 될 기록들의 쓰레기더미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주장도 있다.

이 분야의 어떤 법률에서라도 프라이버시라는 어려운 개념보다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 관심을 두려 위할 것이다. 프라이버시라는 아이디어는 집단이나 기관을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상업적인 정보는 해당기관에는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해석은 공공의 관심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서들의 관심에 반하여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의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과 개

82) Extract from speech by Dr Eric Midwinter, Chairman of the Advisory Centre for Education quoted in 'Freedom of information: the consumer dimension', in *Secrecy or the right to know?* Library Association f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Campaign, 1980.

83) Home Office, *Report of the Committee on Privacy* (Cmnd 5012) (Younger Committee), HMSO, 1972.

84) 'Safegu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Which?* April 1980, 255-8.

인의 관심은 다르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기업에서는 '이윤을 위태롭게 하는 정보는 배포하지 않을 것이다.'<sup>85)</sup> 그러나 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Medawar의 말처럼, '주요공공기업에 대해 개개시민과 똑같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 경우 이것은 예를 들면 토양이나 물, 공기에 대한 오염 정도에 관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감추도록 기업체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sup>86)</sup> 기업체정보에 대한 접근의 제한은 어떤 회사가 경쟁업체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사서와 민간부문의 정보작업자들의 마음을 상당히 괴롭히는 문제이다. 영국도서관협회의 倫理綱領에 관한 논의에서, 일부의 전문도서관사서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는 법률내에서의 정보원에 대한 자유롭고 동등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는 구절을 강령초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민간부문의 다른 사람들은 더욱 공개적인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Management Today*에서 Michael Bardsle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신용에 대한 결정은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상업적인 신뢰는 지식에서 생겨나는 것이다.'<sup>87)</sup>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견실한 의사결정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시민이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당대의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정부에서 정보접근의 자유를 도입한다

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조직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서지통정과 조직은 주요한 문제점으로 여러 사서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Stephen Richard<sup>88)</sup>는 HMSO에서 입수할 수 있는 영국관공청출판물은 20 퍼센트 이하라고 밝히고 있다. Marshallsay<sup>89)</sup>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매년 25,000에서 30,000건의 자료를 현재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겨우 6,000건만이 정부출판국(Stationery Office)에서 발행되고 있다. 더구나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도서관서지봉사부(BLBS: British Library Bibliographic Service)에서는 32페이지 또는 그 이하의 자료를 포함한 몇 가지 범주의 자료에 대해서는 AACR2 제1수준(최저수준)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sup>90)</sup> 이것도 일부문헌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자유의 도입은 정부자료에 대한 索引의 양과 질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영국환경처의 사무차관을 지낸 Geoffrey Wardale경은 '색인의 실제증가량은... 현재 정리된 것보다 적어도 네 배, 아니 적어도 열배가 될 것 같다'<sup>91)</sup>고 밝히고 있다. Hooley법안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는 파일에 대하여 색인을 작성하고 정보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이를 어떻게 입수해야 하는지를 공중이 알 수 있게 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진전은 분명히 공공도서관봉사의 작업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Kitchen<sup>92)</sup>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서들은 사람들의 정보요구에 대

85) Blake, F. M., 'Let my people know', *Wilson Library Bulletin*, 52, 1978, 398.

86) Medawar, C., 'A public right to know', *Aslib Proceedings*, 28, 1976, 69-75.

87) Bardsley, M. 'The facts companies need', *Management Today*, February 1980, 33-41.

88) Richard, S., *comp.*, *Directory of British official publications*, 2nd ed., Mansell, 1984.

89) Marshallsay, D., quoted, *ibid.*

90) British Library Bibliographic Service Consultative Paper 'Currency with coverage', 1987.

91) Wardale, G., 'Freedom of information: the practical issues, administrative consequences', paper given to a one day seminar at Chatham House, 8 December 1981.

92) Kitchen, P.,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Felicitator*, 23, 1977, 6.

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사서들은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지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어로 된 요구를 서지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인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서는 처음에 거절을 당하더라도 단념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잘 얻어낼 수 있다.

공공도서관과 시민안내소(Citizens' Advice Bureaux)는 잘 알려진 친숙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보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도서관당국에 대해서는 정부각부처의 기록에 대한 색인을 보관하고 최소한 조사용자료(inspection collection)에 대한 안내소 및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한 주민센터에는 寄託藏書(deposit collection)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는 그와 같은 장서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의회의 모체(Mother of Parliaments)가 제대로 봉사 받을 수 없다면 이상할 것이다.

그와 같은 장서는 저장공간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이크로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전자형식으로 입수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각부처는 또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를 위해서는 열람실과 시청각실을 마련하고, 정보를 조직하고 검색하고 배포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정보담당자보다는 사서로 불려야 할 것이다—정보담당자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면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자료의 구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보를 찾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봉사는 어떤 직접적인 비용도 물리지 않는 무료의 것이어야 한다. Hooley법안 당시에 인용된 일부의 수

치가 금전에 대한 상당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모든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다소간의 비용증가를 가져오리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예를 들면 색인작성에 있어서의 비용증가는 그와 같은 색인작성이 가져다 줄 효율성 증가로 상쇄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 정부의 파일이 거의 1000마일의 서가를 차지하리라고 정부에서 밝힌 것은 이를 공중이 조사하도록 개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그것은 충격을 주었으며 또한 충격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사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토록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1000마일의 서가는 官公廳情報 가운데 병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국가적 개인적 중대성에 관계없이 정보접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기관과 당국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제안은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들은 기밀을 유지할만한 충분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Peter Wright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영국수상은 기밀법을 완화하기 보다는 이를 확대하도록 하는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sup>93)</sup> 현행법률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비밀을 지키려 하지 않을 엄청난 규모의 관공청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법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며... 형사상의 제재가 실제로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sup>94)</sup>고 밝히고 있는 Franks보고서에서 10여년전에 이미 인식되었던 요소였다. 영국도서관협회에서는 몇년 뒤에 가서 Franks가 밝힌 내용을 되풀이하고, '현행법은... 완

93) 'New law plan to tighten agents' secrecy', *The Guardian*, 12 December 87, 3.

94) Home Office, *Departmental Committee on Section 2 of the Official Secrets Act* (Cmnd 5104) (Franks Committee), HMSO, 1972.

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이며, 협회는 '새로운 법률에서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시설과 함께 그 권리를 재정에 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많은 다른 단체 및 개인과 함께 할 것'<sup>95)</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서관협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억제하고자 하는 당국과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법률의 도입을 지지할 것이다.

많은 면에서 보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이다. 비용의 문제는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률을 불필요하고 비영국적인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KGB와 테러리스트단체를 위한 권리현장'<sup>96)</sup>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는 행정부에 의해 실제문제를 왜곡시키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 마련되어 있는 법률 가운데 하나는 公共圖書館 博物館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이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을, 적어도 영국의 일부에서는, 법률에 의한 봉사기관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정보와 사상에 대해 접근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인식시켜 주고 있

다. 본고의 다른 곳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와 같은 권리가 현재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영국의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는 고 Sam Silkin의 말처럼, '일인일투표권의원칙은 그 사람이 충분하고도 적절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한 전면적으로 적절하게 실행될 수 없다.'<sup>97)</sup> 영국의 비밀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주장의 전거가 다소 아이러니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사서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제적인 생존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직업의 보존과 독립성에 있어서 다소 분명치는 않으나, 결코 현실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려질 위험성이 있다. 그와 같은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한 현재의 상황속에 갇추어져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면, 정보화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대한 권리도 상실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95) Library Association Policy Statement, *Freedom of information*, 1984.

96) Sir James Goldsmith used this phrase when giving evidence to the Media Committee of the Conservative Party.

97) Sam Silkin made this remark during the debate on, I think, the Hooley Bill.